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

김창희 · 박영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Safety Accidents in the School

Kim, Chang-Hee · Park, Young-Soo*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was not intended to analyze out the realities of the safety accidents in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ersona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6th grad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safety accidents in the school.

We made a visit 12 elementary school personally in the B city of Gyeonggi Province and gave out 552 questionnair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we analyzed the 501 answer data except the unfittable data 51 sheets - in case of no answer or untruthfulness. The inspection of the personality used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 and the questionnaires of the safety accidents in the school were reorganized of the questionnaires which were used in Chun-Ok, Joen(1997) and One-Yong, Kim(1999)'s study to correspond with our purpose of study. Answer sheets were gone through the t and x² test by using the program of SPSS.

Fir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in the formative period in the life of a man. So many students's personality was in the middle group rather than in high and low group. In regard of the distintion between the boy students and the girl students, the boy students had higher score in Psychoticism(P) but the girl students had higher score in Neutroticism(N). And Lie(L) was showing a little more score in the girl students.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vestigation of safety accidents in school according to sex distinction.

- 1) Comparing the boy students and the girl students, the rate of accidents was higher in boy rather than girl. A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 2) Comparing the grade of the school, the rate of accidents was higher in upper grade than lower grade both girls and boys.

- 3) In the kind of accidents, the traumatic injuries were very popular and the next were contusion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raumatic injury and nosebleed.
- 4) The results of injured parts showed that the injuries of foot, leg, hand, arm hold a large majority.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ead, face, foot, leg and etc.
- 5) Most accidents broke out during the break time and then accidents happened after school were the next. The flowings were lunch time and class tim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idents happened during the class, break time and lunch time.
- 6) Comparing the subjects, the most accidents broke out in the class of physics.
- 7) Among the cause of accidents, one's own carelessness was showing the highest rate. There was a significant distinction in the fight and game.
- 8) The safety accidents took place most in playground,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 9) Being slight wound was showing almost in the degrees of damage.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boy students were not showing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ation to the personality, the frequency of accidents and the degrees of damage. But the girl students were showing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ation to the Extraversion-Introversion(E) and the frequency of accidents. And there wer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 and N. Also they were showing the intense damag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고는 누구에게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때문에 학교생활에서는 안전생활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학교 안전교육은 학생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활동으로써, 학생 스스로 안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 안전사고의 실태나 원인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여 이를 예방함은 물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박영수, 1998).

특히, 초등학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아동들이 신체 발달 특성상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1999년 한해 동안 시·도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접수된 학교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5,457건으로 이 중 유치원이 619건(4%), 초등학교 5,253건(34%), 중학교 5,035건(32.6%), 고등학교 4,487건(29%) 및 특수학교 63건(0.4%) 등이었다. 이는 1998년 14,421건에 비해 1036건(7%) 정도 늘어난 정도에 불과하지만, 초등학교의 사고 발생 건수가 1998년에 비해 무려 856건(19%) 증가하였다(한국교육원단체총연합회, 2000).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집단 학습생활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신체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성장기에 있다는 것과 사고의 피해가 정신적·신체적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측면과 학습의 상실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

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고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승희, 1999).

지금까지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연구는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분석, 원인 분석, 그리고 안전사고의 판례 등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산업 재해, 교통안전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연구는 매우 획일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천제(1970)는 '산업 재해 사고자의 특성 분석'이라는 오래 전의 연구를 통해서 재해사고 빈발자의 성격특성은 정동의 불안정, 사회적 규범의 무시, 충동성, 주의 집중의 부족, 그리고 적응능력의 부족 등으로 이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사람은 성격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999년 초등학교의 사고 원인별 발생건수 5,456건 중에서 학생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4,459건(81%)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0).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사고 요인도 아동들의 성격특성과 관련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실태나 유형보다는 학교안전사고가 아동들의 성격특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지도대책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학교안전사고의 실태나 유형보다는 초등학교의 성격특성을 파악하여 그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지도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3. 연구의 문제

이 연구는 초등학교의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가. 초등학교의 성격특성은 어떠한가?

나. 초등학교의 학교안전사고의 실태는 어떠한가?

다. 초등학교의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발생빈도, 손상 정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가.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생들이므로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나.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6학년이므로 모든 초등학교생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격(Personality)

'타인과 구분되는 개체의 인식, 감정, 의지 및 신체적 모든 특징의 총합적인 체제'를 말한다(H. J. Eysenck, 1983).

나. 강인성 차원

Eysenck의 성격차원 이론 중 정신병적 경향차원을 말한다.

다. 외-내향성 차원

Eysenck의 성격차원 이론 중 정서변화의 속도 차원을 말한다.

라. 정서성 차원

Eysenck의 성격차원 이론 중 정서적 반응의 강도차원을 말한다.

마. 허위성 차원

Eysenck의 성격차원 이론 중 사회적 욕망성차원을 말한다.

바. 학교안전사고

등교 시각부터 하교 시각까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학교 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신체에 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사건을 말하며, 작은 상처에서부터 사망까지 포함한다.

사. 가벼운 정도의 손상

학교안전사고 중에서 5일 이내의 가정 치료로 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아. 중간 정도의 손상

학교안전사고 중에서 5~7일 정도의 가정 치료로 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자. 심한 정도의 손상

학교안전사고 중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7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구목적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 연구절차 및 연구기간, 검사도구, 자료처리 방법 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003년 6월 현재 경기도 B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12개교에 재학중인 6학년 5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절차 및 연구 기간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3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연구자가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방문 목적과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성격특성 검사지와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3. 검사 도구

가. 성격특성 검사지

성격특성 검사지로는 Eysenck-이현수(1985)의 성격차원검사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영국의 Eysenck 부부가 1975년에 공동 제작한 Eysenck 성격차원 검사(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 EPQ)를 이현수(1985)가 국내판으로 제작한 것으로 성인용과 연소자용이 있는데, 성인용은 79개 문항이고 연소자용은 7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ysenck 성격차원검사는 강인성 또는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정서성 또는 신경증적 경향성, 허위성 또는 사회적 욕망성의 4가지 중요 성격차원적 요인의 특징을 측정하는 설문지 형식으로 된 일종의 성격검사이다.

검사의 결과 얻어진 각 척도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강인성 점수가 높으면 공격적이고, 정서적으로 냉정하며 동정심이 모자라고, 자기 자신과 남의 감정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다.

둘째, 외향성은 사교적이며 모임에 나가기를 좋아하고, 친구가 많으며 모험을 즐기는 특징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향성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독서를 즐기며, 친구가 별로 많지 않으나 일단 사귀면 친구와는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특징이 있다.

셋째, 정서성 점수가 높고 불안정한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많고 불안하며 번덕스럽고 때로는 우울해진다. 조그마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처럼 진정될 줄 모른다. 이와는 달리 정서성 점수가 낮고 안정된 사람은 차분하며 근심 걱정을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넷째, 허위성 척도는 위장 반응의 정도를 측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다른 성격차원의 특징

을 측정하고 있다. 즉,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경향(사회적 욕망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각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검사척도간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성별간은 물론 다른 집단간의 성격차원의 특징은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강인성 척도와 외-내향성 척도의 점수는 남성들이 높고, 정서성 척도와 허위성 척도의 점수는 여성들이 높다. 이것은 우리나라 남성들은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외향적이며,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기의 감정 노출을 억제하고 있다는 성격 특징의 한 측면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차원의 특징은 성인과 연소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이현수, 1985). 이는 류희정(1984)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Eysenck-이현수의 성격차원검사 중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해당하는 연소자용을 구성하는 각 척도별 문항은 <표 II-1>과 같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격차원검사의 신뢰도는 <표 II-2>와 같다.

이 신뢰도는 α 계수로 산출되는데 검사척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성인이나 연소자 모두 비교적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미 표준화 작업이 끝난 것이다.

나. 학교안전사고 설문지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춘옥(1997)과 김원용(1999)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문항을 토대로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4. 자료처리 방법

회수된 설문지 총 552부를 검토한 후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입하는 등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51부의 설문지를 제외시키고 최종 501부를 대상으로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가. 초등학교의 성격특성은 각 성격특성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차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나. 초등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는 설문 문항별로 반응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성별에

표 II-2. 성격차원검사의 척도별 신뢰도

검 사 척 도	남 자	여 자
강인성	.685	.666
외-내향성	.813	.786
정서성	.776	.784
허위성	.748	.741

표 II-1. 성격차원검사 척도별 문항구성

검사문항 검사척도	문항수	긍 정 문 항 번 호	부 정 문 항 번 호
강인성	13	1, 3, 7, 12, 15, 20, 23, 28, 46, 49, 50, 57, 70	
외-내향성	15	5, 13, 17, 26, 32, 35, 36, 38, 48, 53, 60, 64	9, 42, 66
정서성	18	2, 10, 14, 18, 21, 24, 29, 33, 39, 43, 47, 51, 54, 56, 58, 61, 67, 69	
허위성	24	8, 22, 25, 27, 31, 37, 41, 45, 52, 62, 63	4, 6, 11, 16, 19, 30, 34, 40, 44, 55, 59, 65, 68
계	70	54	16

표 II-3. 학교안전사고의 설문지 문항구성

영역	문항번호	내용	문항수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1	연구 대상자의 성별	1
	2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빈도	1
	3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학년	1
	4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시간	1
	5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교과	1
	6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부위	1
	7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1
	8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1
	9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	1
	10	학교안전사고의 손상 정도	1

표 III-1. 일반적인 성격특성

N(%)

성격특성	정도			계
	상	중	하	
강인성	72 (14.3)	349 (69.7)	80 (16.0)	501 (100.0)
외-내향성	30 (6.0)	394 (78.6)	77 (15.4)	501 (100.0)
정서성	95 (19.0)	303 (60.5)	103 (20.5)	501 (100.0)
허위성	59 (11.8)	363 (72.8)	77 (15.4)	501 (100.0)

다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발생 빈도, 손상의 정도)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른 각 성격특성과 발생 빈도, 손상의 정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의 성격특성 검사 결과

가. 일반적인 성격특성

성격특성 검사에 의한 조사대상 아동 전체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성격특성의 상·중·하 구별을 T점수($40 \leq T \leq 60$)로 나눈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의 결과를 보면 외-내향성에서 내향성의 아동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친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타인들과 거리를 두고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서와 사색을 즐기고, 자신의 기분을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별로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허위성에서는 허위성 점수가 낮은 아동이 많

하며 남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자기중심

표 III-2. 성별 성격특성

성격특성	남 (N=247)		여 (N=254)		t
	M	SD	M	SD	
강인성	5.18	2.85	3.86	2.37	5.633**
외-내향성	10.76	3.51	10.81	3.18	-.167
정서성	5.28	3.42	6.68	4.00	-4.188**
허위성	11.91	3.96	12.61	3.54	-2.107*

* $p < .05$, ** $p < .01$

은 것으로 보아서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려는 어린이다운 순진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미진(1997)과 정남순(1995)의 연구에서는 강인성과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많았고, 외향성의 아동이 내향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허위성에서는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성격특성의 상·하에 속하는 아동보다 중간에 속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성격특성이 일정한 개인 특유의 성격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아동은 아직 그 성격 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인간의 성격차가 특성으로 설명될 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특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로 설명될 수 있다(윤경희, 1983).

나. 성별 성격특성

성별 성격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각 성격특성별로 살펴보면 강인성($p < .01$)과 정서성($p < .01$) 그리고 허위성($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내향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인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남자가 대체로 공격적이고 장난이 심

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서성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여자가 대체로 근심과 걱정이 많고 불안하며 번덕스럽고 때로는 우울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허위성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여자가 대체로 자신의 감정 노출을 억제하며 소박한 사회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진(1997)과 임경희(1998)의 연구에서도 남자는 강인성이 높았고, 여자는 정서성과 허위성이 높았으며, 외-내향성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2.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조사 결과

가. 성별 사고 발생

성별 사고 발생 분포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에 의하면, 성별로 사고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경험이 전혀 없는 아동의 비율은 남자(9.7%)가 여자(12.2%)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고 경험은 남자가 더 높았다.

특히 1~3회의 사고 경험을 가진 아동의 비율은 여자(55.9%)가 남자(42.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4회 이상의 사고 경험을 가진 아동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회 이상의 사고 경험을 가진 아동에서는 남자(16.6%) 여자(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 활동량이 많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놀이나 운동을

표 III-3. 성별 사고 발생 분포

N(%)

사고 빈도 \ 성별	남(N=247)	여(N=254)	유의도
0회	24(9.7)	31(12.2)	$\chi^2=18.42$ df=4 p<.01
1~3회	105(42.5)	142(55.9)	
4~6회	55(22.3)	48(18.9)	
7~9회	22(8.9)	17(6.7)	
10회 이상	41(16.6)	16(6.3)	

표 III-4. 학년별 사고 발생 분포

N(%)

학년	사고 빈도	빈도					유의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남	173(70.0)	38(15.4)	22(8.9)	10(4.0)	4(1.6)	$\chi^2=3.36$
	여	193(76.0)	36(14.2)	17(6.7)	6(2.4)	2(0.8)	
	계	366(73.1)	74(14.8)	39(7.8)	16(3.2)	6(1.2)	
2	남	175(70.9)	46(18.6)	14(5.7)	8(3.2)	4(1.6)	$\chi^2=3.56$
	여	187(73.6)	50(19.7)	12(4.7)	3(1.2)	2(0.8)	
	계	362(72.3)	96(19.2)	26(5.2)	11(2.2)	6(1.2)	
3	남	148(59.9)	52(21.1)	25(10.1)	12(4.9)	10(4.0)	$\chi^2=12.66^*$
	여	175(68.9)	57(22.4)	15(5.9)	4(1.6)	3(1.2)	
	계	323(64.5)	109(21.8)	40(8.0)	16(3.2)	13(2.6)	
4	남	135(54.7)	75(30.4)	23(9.3)	7(2.8)	7(2.8)	$\chi^2=6.98$
	여	165(65.0)	57(22.4)	22(8.7)	7(2.8)	3(1.2)	
	계	300(59.9)	132(26.3)	45(9.0)	14(2.8)	10(2.0)	
5	남	86(34.8)	78(31.6)	44(17.8)	20(8.1)	19(7.7)	$\chi^2=19.71^{**}$
	여	134(52.8)	67(26.4)	32(12.6)	14(5.5)	7(2.8)	
	계	220(43.9)	145(28.9)	76(15.2)	34(6.8)	26(5.2)	
6	남	106(42.9)	80(32.4)	39(15.8)	13(5.3)	9(3.6)	$\chi^2=8.98$
	여	129(50.8)	87(34.3)	20(7.9)	11(4.3)	7(2.8)	
	계	235(46.9)	167(33.3)	59(11.8)	24(4.8)	16(3.2)	

*p<.05, **p<.01

즐기는 반면 여자는 안전한 놀이나 가벼운 운동을 선호하는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 학년별 사고 발생

학년별 사고 발생 분포는 <표 III-4>와 같다.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여 모두 사고

의 비율이 높고, 남자와 여자의 사고 발생율이 점차 차이가 나고 있으며, 4회 이상의 사고 경험에서 3학년과 5학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학년(p<.01)과 3학년(p<.05)에서는 남·여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공목(2000)과 전춘옥(1997)의 연구에서는 6학년에서 가장 많은 사고 발생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연구결과에서는 5학년에서 가장 많은 사고 발생율을 나타냈다. 이는 6학년 1학기까지의 사고 경험을 조사했기 때문이며, 6학년 1년 동안의 사고 경험을 조사했다면 같은 결과를 나왔으리라 생각된다.

다. 사고의 종류

사고 종류별 발생 분포는 <표 III-5>와 같다. 전체 사고 중 외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타박상이며, 김원용(1999)과 전춘옥(1997)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외상($p < .05$)과 비출혈($p < .05$)에서는 남·여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III-3>의 남·여별 사고 발생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비출혈이 남자에게 많은 것은 여자보다 싸움과 장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 사고의 부위

사고 부위별 발생 분포는 <표 III-6>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대체로 발·다리와 손·팔을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춘옥(1997)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하나 임공목(2000)의 연구에서는 손·팔 부위의 사고가 더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머리($p < .05$), 얼굴($p < .05$), 발·다리($p < .05$) 그리고 기타($p < .01$)에서 남·여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사고 종류별 발생 분포

N(%)

사고 종류		사고 빈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유의도
외 상	남	67(27.1)	52(21.1)	38(15.4)	31(12.6)	59(23.9)	$\chi^2=11.52^*$	
	여	80(31.5)	77(30.3)	36(14.2)	21(8.3)	40(15.7)		
	계	147(29.3)	129(25.7)	74(14.8)	52(10.4)	99(19.8)		
염 좌	남	226(91.5)	15(6.1)	5(2.0)	1(0.4)	0(-)	$\chi^2=2.85$	
	여	236(92.9)	11(4.3)	4(1.6)	1(0.4)	2(0.8)		
	계	462(92.2)	26(5.2)	9(1.8)	2(0.4)	2(0.4)		
타박상	남	118(47.8)	51(20.6)	26(10.5)	22(8.9)	30(12.1)	$\chi^2=4.79$	
	여	127(50.0)	66(26.0)	24(9.4)	15(5.9)	22(8.7)		
	계	245(48.9)	117(23.4)	50(10.0)	37(7.4)	52(10.4)		
골 절	남	220(89.1)	22(8.9)	2(0.8)	1(0.4)	2(0.8)	$\chi^2=2.42$	
	여	230(90.6)	20(7.9)	3(1.2)	1(0.4)	0(-)		
	계	450(89.8)	42(8.4)	5(1.0)	2(0.4)	2(0.4)		
비출혈	남	202(81.8)	23(9.3)	14(5.7)	5(2.0)	3(1.2)	$\chi^2=10.68^*$	
	여	226(89.0)	22(8.7)	3(1.2)	2(0.8)	1(0.4)		
	계	428(85.4)	45(9.0)	17(3.4)	7(1.4)	4(0.8)		
기 타	남	220(89.1)	15(6.1)	5(2.0)	1(0.4)	6(2.4)	$\chi^2=7.75$	
	여	236(92.9)	15(5.9)	2(0.8)	1(0.4)	0(-)		
	계	456(91.0)	30(6.0)	7(1.4)	2(0.4)	6(1.2)		

* $p < .05$

표 III-6. 사고 부위별 발생 분포

N(%)

사고 빈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유의도
사고 부위							
머리	남	211(85.4)	27(10.9)	6(2.4)	0(-)	3(1.2)	x ² =11.04*
	여	235(92.5)	17(6.7)	1(0.4)	1(0.4)	0(-)	
	계	446(89.0)	44(8.8)	7(1.4)	1(0.2)	3(0.6)	
얼굴	남	185(74.9)	40(16.2)	16(6.5)	4(1.6)	2(0.8)	x ² =11.78*
	여	217(85.4)	30(11.8)	5(2.0)	1(0.4)	1(0.4)	
	계	402(80.2)	70(14.0)	21(4.2)	5(1.0)	3(0.6)	
코	남	217(87.9)	23(9.3)	4(1.6)	1(0.4)	2(0.8)	x ² =6.32
	여	238(93.7)	13(5.1)	2(0.8)	1(0.4)	0(-)	
	계	455(90.8)	36(7.2)	6(1.2)	2(0.4)	2(0.4)	
몸통	남	202(81.8)	20(8.1)	15(6.1)	5(2.0)	5(2.0)	x ² =7.51
	여	229(90.2)	12(4.7)	8(3.1)	3(1.2)	2(0.8)	
	계	431(86.0)	32(6.4)	23(4.6)	8(1.6)	7(1.4)	
손·팔	남	88(35.6)	66(26.7)	35(14.2)	27(10.9)	31(12.6)	x ² =4.02
	여	106(41.7)	66(26.0)	39(15.4)	20(7.9)	23(9.1)	
	계	194(38.7)	132(26.3)	74(14.8)	47(9.4)	54(10.8)	
발·다리	남	98(39.7)	46(18.6)	40(16.2)	21(8.5)	42(17.0)	x ² =13.06*
	여	92(36.2)	72(28.3)	51(20.1)	15(5.9)	24(9.4)	
	계	190(37.9)	118(23.6)	91(18.2)	36(7.2)	66(13.2)	
기타	남	223(90.3)	18(7.3)	2(0.8)	0(-)	4(1.6)	x ² =12.91**
	여	248(97.6)	5(2.0)	1(0.4)	0(-)	0(-)	
	계	471(94.0)	23(4.6)	3(0.6)	0(-)	4(0.8)	

*p<.05, **p<.01

표 III-7. 시간별 사고 발생 분포

N(%)

사고빈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유의도
사고 시간							
1교시 전	남	208(84.2)	26(10.5)	8(3.2)	2(0.8)	3(1.2)	x ² =4.49
	여	229(90.2)	17(6.7)	5(2.0)	2(0.8)	1(0.4)	
	계	437(87.2)	43(8.6)	13(2.6)	4(0.8)	4(0.8)	
수업 중	남	176(71.3)	39(15.8)	16(6.5)	9(3.6)	7(2.8)	x ² =9.53*
	여	150(59.1)	63(24.8)	24(9.4)	8(3.1)	9(3.5)	
	계	326(65.1)	102(20.4)	40(8.0)	17(3.4)	16(3.2)	
쉬는 시간	남	126(51.0)	41(16.6)	32(13.0)	19(7.7)	29(11.7)	x ² =15.94**
	여	142(55.9)	66(26.0)	19(7.5)	10(3.9)	17(6.7)	
	계	268(53.5)	107(21.4)	51(10.2)	29(5.8)	46(9.2)	
점심 시간	남	149(60.3)	42(17.0)	16(6.5)	18(7.3)	22(8.9)	x ² =14.60**
	여	177(69.7)	41(16.1)	21(8.3)	8(3.1)	7(2.8)	
	계	326(65.1)	83(16.6)	37(7.4)	26(5.2)	29(5.8)	
방과 후	남	150(60.7)	40(16.2)	22(8.9)	16(6.5)	19(7.7)	x ² =8.40
	여	175(68.9)	45(17.7)	15(5.9)	10(3.9)	9(3.5)	
	계	325(64.9)	85(17.0)	37(7.4)	26(5.2)	28(5.6)	
청소 시간	남	210(85.0)	30(12.1)	4(1.6)	3(1.2)	0(-)	x ² =6.29
	여	220(86.6)	22(8.7)	9(3.5)	1(0.4)	2(0.8)	
	계	430(85.8)	52(10.4)	13(2.6)	4(0.8)	2(0.4)	
특별 활동	남	226(91.5)	13(5.3)	2(0.8)	3(1.2)	3(1.2)	x ² =2.91
	여	240(94.5)	8(3.1)	3(1.2)	1(0.4)	2(0.8)	
	계	466(93.0)	21(4.2)	5(1.0)	4(0.8)	5(1.0)	
기타	남	228(92.3)	12(4.9)	2(0.8)	0(-)	5(2.0)	x ² =7.14
	여	243(95.7)	9(3.5)	1(0.4)	1(0.4)	0(-)	
	계	471(94.0)	21(4.2)	3(0.6)	1(0.2)	5(1.0)	

*p<.05 **p<.01

마. 사고 발생 시간

시간별 사고 발생 분포는 <표 Ⅲ-7>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아동들은 쉬는 시간에 가장 많이 다치고, 그 다음이 방과 후, 점심시간 그리고 수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p < .05$), 쉬는 시간($p < .01$) 그리고 점심 시간($p < .01$)에 남·여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공묵(2000)의 연구에서는 체육시간과 일반 교과시간 등 수업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쉬는 시간이었다.

전춘옥(1997)의 연구에서도 수업 중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원인은 사고의 조사 방법과 조사도구의 차이인 것으로 여겨진다.

바. 교과 시간별 발생 분포

교과 시간별 사고 발생 분포는 <표 Ⅲ-8>과 같다. 교과 시간별 사고 발생에서는 남·여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로 남·여

모두 체육시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은 미술시간이다. 특히, 체육시간에서 사고율이 다른 교과보다 높은 원인은 체육교과의 특성상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교육 활동이 많아 그만큼 사고 발생도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 사고의 원인

사고 원인별 분포는 <표 Ⅲ-9>와 같다. 전체적으로 남·여 모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특히 남자의 경우 싸움($p < .01$)과 장난($p < .01$)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상도(1991)와 전춘옥(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아. 사고의 장소

사고 발생 장소별 분포는 <표 Ⅲ-10>과 같다. 발생 장소는 운동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실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장에서 발생하

표 Ⅲ-8. 교과 시간별 사고 발생 분포 N(%)

사고빈도 교과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유의도
체 육	남	194(78.5)	30(12.1)	13(5.3)	6(2.4)	4(1.6)	$\chi^2=8.08$
	여	175(68.9)	54(21.3)	15(5.9)	5(2.0)	5(2.0)	
	계	369(73.7)	84(16.8)	28(5.6)	11(2.2)	9(1.8)	
미 술	남	236(95.5)	7(2.8)	2(0.8)	1(0.4)	1(0.4)	$\chi^2=0.22$
	여	241(94.9)	8(3.1)	3(1.2)	1(0.4)	1(0.4)	
	계	477(95.2)	15(3.0)	5(1.0)	2(0.4)	2(0.4)	
과 학	남	240(97.2)	7(2.8)	0(-)	0(-)	0(-)	$\chi^2=0.20$
	여	245(96.5)	9(3.5)	0(-)	0(-)	0(-)	
	계	485(96.8)	16(3.2)	0(-)	0(-)	0(-)	
실 과	남	242(98.0)	5(2.0)	0(-)	0(-)	0(-)	$\chi^2=1.06$
	여	245(96.5)	9(3.5)	0(-)	0(-)	0(-)	
	계	487(97.2)	14(2.8)	0(-)	0(-)	0(-)	
기 타	남	242(98.0)	4(1.6)	0(-)	0(-)	1(0.4)	$\chi^2=6.54$
	여	238(93.7)	11(4.3)	3(1.2)	0(-)	2(0.8)	
	계	480(95.8)	15(3.0)	3(0.6)	0(-)	3(0.6)	

표 III-9. 사고 원인별 분포

N(%)

사고 원인		사고빈도					유의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본인 부주의	남	118(47.8)	45(18.2)	28(11.3)	22(8.9)	34(13.8)	$\chi^2=4.78$
	여	119(46.9)	62(24.4)	31(12.2)	16(6.3)	26(10.2)	
	계	237(47.3)	107(21.4)	59(11.8)	38(7.6)	60(12.0)	
타인 부주의	남	166(67.2)	41(16.6)	15(6.1)	11(4.5)	14(5.7)	$\chi^2=5.43$
	여	158(62.2)	61(24.0)	17(6.7)	9(3.5)	9(3.5)	
	계	324(64.7)	102(20.4)	32(6.4)	20(4.0)	23(4.6)	
시설미 비	남	229(92.7)	9(3.6)	4(1.6)	3(1.2)	2(0.8)	$\chi^2=4.20$
	여	224(88.2)	19(7.5)	4(1.6)	3(1.2)	4(1.6)	
	계	453(90.4)	28(5.6)	8(1.6)	6(1.2)	6(1.2)	
싸움	남	175(70.9)	38(15.4)	16(6.5)	6(2.4)	12(4.9)	$\chi^2=32.91^{**}$
	여	229(90.2)	18(7.1)	5(2.0)	1(0.4)	1(0.4)	
	계	404(80.6)	56(11.2)	21(4.2)	7(1.4)	13(2.6)	
장난	남	117(47.4)	53(21.5)	27(10.9)	24(9.7)	26(10.5)	$\chi^2=21.49^{**}$
	여	168(66.1)	41(16.1)	22(8.7)	9(3.5)	14(5.5)	
	계	285(56.9)	94(18.8)	49(9.8)	33(6.6)	40(8.0)	
피로 누적	남	321(93.5)	9(3.6)	5(2.0)	2(0.8)	0(-)	$\chi^2=2.73$
	여	241(94.9)	9(3.5)	2(0.8)	1(0.4)	1(0.4)	
	계	472(94.2)	18(3.6)	7(1.4)	3(0.6)	1(0.2)	
기타	남	230(93.1)	7(2.8)	4(1.6)	3(1.2)	3(1.2)	$\chi^2=6.47$
	여	243(95.7)	8(3.1)	3(1.2)	0(-)	0(-)	
	계	473(94.4)	15(3.0)	7(1.4)	3(0.6)	3(0.6)	

**p<.01

표 III-10. 사고 발생 장소별 분포

N(%)

사고 장소		사고빈도					유의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교실	남	133(53.8)	52(21.1)	28(11.3)	15(6.1)	19(7.7)	$\chi^2=0.47$
	여	139(54.7)	57(22.4)	25(9.8)	14(5.5)	19(7.5)	
	계	272(54.3)	109(21.8)	53(10.6)	29(5.8)	38(7.6)	
복도	남	160(64.8)	40(16.2)	22(8.9)	15(6.1)	10(4.0)	$\chi^2=9.05$
	여	182(71.7)	47(18.5)	13(5.1)	6(2.4)	6(2.4)	
	계	342(68.3)	87(17.4)	35(7.0)	21(4.2)	16(3.2)	
계단	남	203(82.2)	23(9.3)	18(7.3)	1(0.4)	2(0.8)	$\chi^2=3.42$
	여	204(80.3)	33(13.0)	12(4.7)	2(0.8)	3(1.2)	
	계	407(81.2)	56(11.2)	30(6.0)	3(0.6)	5(1.0)	
운동장	남	86(34.8)	50(20.2)	29(11.7)	31(12.6)	51(20.6)	$\chi^2=23.94^{**}$
	여	106(41.7)	81(31.9)	27(10.6)	14(5.5)	26(10.2)	
	계	192(38.3)	131(26.1)	56(11.2)	45(9.0)	77(15.4)	
실외 좁은 공간	남	227(91.9)	14(5.7)	3(1.2)	1(0.4)	2(0.8)	$\chi^2=8.48$
	여	245(96.5)	4(1.6)	3(1.2)	2(0.8)	0(-)	
	계	472(94.2)	18(3.6)	6(1.2)	3(0.6)	2(0.4)	
기타	남	227(91.9)	12(4.9)	4(1.6)	2(0.8)	2(0.8)	$\chi^2=5.45$
	여	244(96.1)	8(3.1)	1(0.4)	0(-)	1(0.4)	
	계	471(94.0)	20(4.0)	5(1.0)	2(0.4)	3(0.6)	

**p<.01

표 III-11. 손상 정도별 분포

N(%)

사고빈도 \ 손상 정도		사고빈도					유의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벼운 정 도	남	55(22.3)	33(13.4)	44(17.8)	23(9.3)	92(37.2)	$\chi^2=17.08^{**}$
	여	62(24.4)	65(25.6)	44(17.3)	22(8.7)	61(24.0)	
	계	117(23.4)	98(19.6)	88(17.6)	45(9.0)	153(30.5)	
중 간 정 도	남	150(60.7)	40(16.2)	24(9.7)	15(6.1)	18(7.3)	$\chi^2=9.06$
	여	173(68.1)	46(18.1)	16(6.3)	5(2.0)	14(5.5)	
	계	323(64.5)	86(17.2)	40(8.0)	20(4.0)	32(6.4)	
심 한 정 도	남	195(78.9)	44(17.8)	5(2.0)	1(0.4)	2(0.8)	$\chi^2=5.97$
	여	217(85.4)	28(11.0)	7(2.8)	0(-)	2(0.8)	
	계	412(82.2)	72(14.4)	12(2.4)	1(0.2)	4(0.8)	
불 구	남	246(99.6)	1(0.4)	0(-)	0(-)	0(-)	$\chi^2=1.03$
	여	254(100)	0(-)	0(-)	0(-)	0(-)	
	계	500(99.8)	1(0.2)	0(-)	0(-)	0(-)	

**p<.01

는 사고에서는 남·여간에 유의한 차이(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체육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신체 접촉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권상도(1991)와 전춘옥(1997)의 연구에서도 운동장에서의 사고 발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교실 순이었다.

자. 손상의 정도

손상 정도별 분포는 <표 III-11>과 같다. 대체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사고를 많이 당하며, 특히 가벼운 정도에서는 남·여간에 유의한 차이(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 정도와 심한 정도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사고 발생이 많음을 보여준다.

3.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와의 관계

가.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의 관계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빈

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성격특성의 상·하 구별을 T점수(T=50)로 구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12>, <표 III-13>과 같다.

남자의 경우에는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빈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외향성의 아동들이 내향성보다 사고 발생 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외-내향성과 사고 발생 빈도와는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의 아동들은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활발하며 결단이 빠르고 행동적이지만 사려가 깊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내향성의 아동들은 결단을 주저하고 실행력이 부족하며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사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고 비판적이며 추상적·이론적 사색을 즐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특성으로 인해 외-내향성과 사고 발생 빈도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자의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외향성의 아동들이 내향성보다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결과를 보여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표 III-12.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빈도(남)

N(%)

성격특성		발생 빈도			계	유의도
		0회	1~6회	7회 이상		
강인성	상	9(7.5)	81(67.5)	30(25.0)	120(100.0)	$\chi^2=1.47$
	하	15(11.8)	79(62.2)	33(26.0)	127(100.0)	
외-내향성	상	12(7.8)	106(69.3)	35(22.9)	153(100.0)	$\chi^2=3.80$
	하	12(12.8)	54(57.4)	28(29.8)	94(100.0)	
정서성	상	12(11.1)	70(64.8)	26(24.1)	108(100.0)	$\chi^2=0.54$
	하	12(8.6)	90(64.7)	37(26.6)	139(100.0)	
허위성	상	15(10.8)	91(65.5)	33(23.7)	139(100.0)	$\chi^2=0.79$
	하	9(8.3)	69(63.9)	30(27.8)	108(100.0)	

표 III-13.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빈도(여)

N(%)

성격특성		발생 빈도			계	유의도
		0회	1~6회	7회 이상		
강인성	상	19(13.1)	104(71.7)	22(15.2)	145(100.0)	$\chi^2=1.89$
	하	12(11.0)	86(78.9)	11(10.1)	109(100.0)	
외-내향성	상	16(9.9)	118(73.3)	27(16.8)	161(100.0)	$\chi^2=6.82^*$
	하	15(16.1)	72(77.4)	6(6.5)	93(100.0)	
정서성	상	17(14.2)	87(72.5)	16(13.3)	120(100.0)	$\chi^2=0.90$
	하	14(10.4)	103(76.9)	17(12.7)	134(100.0)	
허위성	상	15(11.6)	93(72.1)	21(16.3)	129(100.0)	$\chi^2=2.51$
	하	16(12.8)	97(77.6)	12(9.6)	125(100.0)	

*p<.05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자는 외-내향성과 사고 발생 빈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자가 성격특성에 따른 사고 발생 빈도와 의 관계보다는 다른 요인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성격특성보다는 신체 활동 등 다른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나.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 손상 정도와의 관계

각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 손상 정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성격특성의 상·하 구별을 T점수(T=50)로 구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1) 성격특성과 손상 정도(가벼운 정도)와의 관계
 각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 손상 정도(가벼운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14>, <표 III-15>와 같다.

남·여 모두 성격특성과 가벼운 손상 정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외향성의 아동들이 가벼운 손상 정도의 사고율이 남·여 모두 높았고, 강인성과 허위성에서는 성별에 따라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표 III-14.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의 손상 정도(가벼운 정도-남)

N(%)

성격특성		손상 정도(가벼운 정도)					계	유의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강인성	상	29(24.2)	17(14.2)	22(18.3)	9(7.5)	43(35.8)	120(100.0)	$\chi^2=1.48$
	하	26(20.5)	16(12.6)	22(17.3)	14(11.0)	49(38.6)		
외- 내향성	상	31(20.3)	26(17.0)	28(18.3)	16(10.5)	52(34.0)	153(100.0)	$\chi^2=6.47$
	하	24(25.5)	7(7.4)	16(17.0)	7(7.4)	40(42.6)		
정서성	상	29(26.9)	16(14.8)	21(19.4)	8(7.4)	34(31.5)	108(100.0)	$\chi^2=4.86$
	하	26(18.7)	17(12.2)	23(16.5)	15(10.8)	58(41.7)		
허위성	상	36(25.9)	17(12.2)	24(17.3)	13(9.4)	49(35.3)	139(100.0)	$\chi^2=2.58$
	하	19(17.6)	16(14.8)	20(18.5)	10(9.3)	43(39.8)		

표 III-15.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의 손상 정도(가벼운 정도-여)

N(%)

성격특성		손상 정도(가벼운 정도)					계	유의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강인성	상	30(20.7)	41(28.3)	23(15.9)	14(9.7)	37(25.5)	145(100.0)	$\chi^2=3.99$
	하	32(29.4)	24(22.0)	21(19.3)	8(7.3)	24(22.0)		
외- 내향성	상	33(20.5)	44(27.3)	27(16.8)	12(7.5)	45(28.0)	161(100.0)	$\chi^2=6.93$
	하	29(31.2)	21(22.6)	17(18.3)	10(10.8)	16(17.2)		
정서성	상	30(25.0)	37(30.8)	17(14.2)	9(7.5)	27(22.5)	120(100.0)	$\chi^2=4.36$
	하	32(23.9)	28(20.9)	27(20.1)	13(9.7)	34(25.4)		
허위성	상	30(23.3)	30(23.3)	25(19.4)	10(7.8)	34(26.4)	129(100.0)	$\chi^2=2.19$
	하	32(25.6)	35(28.0)	19(15.2)	12(9.6)	27(21.6)		

표 III-16.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의 손상 정도(중간 정도-남)

N(%)

성격특성		손상 정도(중간 정도)					계	유의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강인성	상	66(55.0)	24(20.0)	13(10.8)	7(5.8)	10(8.3)	120(100.0)	$\chi^2=4.02$
	하	84(66.1)	16(12.6)	11(8.7)	8(6.3)	8(6.3)		
외- 내향성	상	90(58.8)	28(18.3)	17(11.1)	7(4.6)	11(7.2)	153(100.0)	$\chi^2=3.64$
	하	60(63.8)	12(12.8)	7(7.4)	8(8.5)	7(7.4)		
정서성	상	60(55.6)	20(18.5)	15(13.9)	5(4.6)	8(7.4)	108(100.0)	$\chi^2=5.59$
	하	90(64.7)	20(14.4)	9(6.5)	10(7.2)	10(7.2)		
허위성	상	91(65.5)	22(15.8)	12(8.6)	6(4.3)	8(5.8)	139(100.0)	$\chi^2=4.23$
	하	59(54.6)	18(16.7)	12(11.1)	9(8.3)	10(9.3)		

표 III-17.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의 손상 정도(중간 정도-여)

N(%)

성격특성		손상 정도(중간 정도)					계	유의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강인성	상	100(69.0)	26(17.9)	7(4.8)	3(2.1)	9(6.2)	145(100.0)	$\chi^2=1.52$
	하	73(67.0)	20(18.3)	9(8.3)	2(1.8)	5(4.6)	109(100.0)	
외-내향성	상	110(68.3)	32(19.9)	8(5.0)	2(1.2)	9(5.6)	161(100.0)	$\chi^2=3.18$
	하	63(67.7)	14(15.1)	8(8.6)	3(3.2)	5(5.4)	93(100.0)	
정서성	상	79(65.8)	19(15.8)	10(8.3)	4(3.3)	8(6.7)	120(100.0)	$\chi^2=5.02$
	하	94(70.1)	27(20.1)	6(4.5)	1(0.7)	6(4.5)	134(100.0)	
허위성	상	88(68.2)	23(17.8)	4(3.1)	4(3.1)	10(7.8)	129(100.0)	$\chi^2=8.36$
	하	85(68.0)	23(18.4)	12(9.6)	1(0.8)	4(3.2)	125(100.0)	

표 III-18.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의 손상 정도(심한 정도-남)

N(%)

성격특성		손상 정도(심한 정도)					계	유의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강인성	상	93(77.5)	24(20.0)	2(1.7)	0(-)	1(0.8)	120(100.0)	$\chi^2=1.78$
	하	102(80.3)	20(15.7)	3(2.4)	1(0.8)	1(0.8)	127(100.0)	
외-내향성	상	119(77.8)	29(19.0)	3(2.0)	0(-)	2(1.3)	153(100.0)	$\chi^2=3.23$
	하	76(80.9)	15(16.0)	2(2.1)	1(1.1)	0(-)	94(100.0)	
정서성	상	82(75.9)	20(18.5)	3(2.8)	1(0.9)	2(1.9)	108(100.0)	$\chi^2=4.68$
	하	113(81.3)	24(17.3)	2(1.4)	0(-)	0(-)	139(100.0)	
허위성	상	110(79.1)	23(16.5)	3(2.2)	1(0.7)	2(1.4)	139(100.0)	$\chi^2=2.65$
	하	85(78.7)	21(19.4)	2(1.9)	0(-)	0(-)	108(100.0)	

2) 성격특성과 손상 정도(중간 정도)와의 관계
 각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 손상 정도(중간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16>, <표 III-17>과 같다.

남·여 모두 성격특성과 중간 정도의 손상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성격특성별로 가벼운 정도의 손상보다는 사고율이 낮았다.

3) 성격특성과 손상 정도(심한 정도)와의 관계
 각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 손상 정도(심한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18>, <표 III-19>와 같다. 남자는 성격특성과 심한 손상 정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

는 외-내향성($p < .05$)과 정서성($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향성의 성격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심한 정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리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긴장이 나 불안감 및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많으며,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고 결단력이 부족하여 우유부단하며 돌발적인 장애물에 대한 반응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의 손상 정도와의 관계에서는 여자의 경우에만 심한

표 III-19.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의 손상 정도(심한 정도-여)

N(%)

성격특성		손상 정도(심한 정도)					계	유의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강인성	상	119(82.1)	19(13.1)	6(4.1)	0(-)	1(0.7)	145(100.0)	$\chi^2=4.16$
	하	98(89.9)	9(8.3)	1(0.9)	0(-)	1(0.9)	109(100.0)	
외-내향성	상	130(80.7)	23(14.3)	6(3.7)	0(-)	2(1.2)	161(100.0)	$\chi^2=8.06^*$
	하	87(93.5)	5(5.4)	1(1.1)	0(-)	0(-)	93(100.0)	
정서성	상	99(82.5)	12(10.0)	7(5.8)	0(-)	2(1.7)	120(100.0)	$\chi^2=10.50^*$
	하	118(88.1)	16(11.9)	0(-)	0(-)	0(-)	134(100.0)	
허위성	상	115(89.1)	11(8.5)	2(1.6)	0(-)	1(0.8)	129(100.0)	$\chi^2=3.29$
	하	102(81.6)	17(13.6)	5(4.0)	0(-)	1(0.8)	125(100.0)	

* $p < .05$

정도의 손상 정도에서 외-내향성($p < .05$)과 정서성($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성격특성 외에 아동들의 신체 활동이나 생활태도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성격특성을 파악하여 그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지도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학교안전사고의 실태나 유형의 분석보다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성격특성을 파악하여 그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B시의 12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총 55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중 응답하지 않

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입하는 등 자료 처리가 불가능한 51부를 제외한 501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로써 성격특성 검사지는 Eysenck-이현수(1985)의 성격차원검사를 사용했고, 학교안전사고 설문지는 전춘옥(1997)과 김원용(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분석 목적에 맞게 t검정과 χ^2 검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은 상·하에 속하는 아동보다 중간에 속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은 일정한 개인 특유의 성격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며, 이것은 초등학교 아동은 성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자는 강인성이 높고, 여자는 정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허위성에서는 여자가 약간 높았다.

둘째,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조사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1) 남·여별 사고 발생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학년별 사고 발생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여 모두 사고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 3) 사고의 종류에서는 외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타박상이었으며, 외상과 비출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4) 사고의 부위는 발·다리와 손·팔 부위가 가장 많았고, 머리, 얼굴, 발·다리 그리고 기타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5) 사고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방과 후, 점심 시간, 그리고 수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6) 교과시간별 사고 발생은 체육시간이 가장 많았다.
- 7) 사고 원인은 본인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싸움과 장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8) 사고의 장소는 운동장이 가장 많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9) 손상의 정도에서는 대체로 가벼운 정도의 사고가 많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남자는 성격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 그리고 손상 정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는 외-내향성과 사고 발생 빈도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외-내향성과 정서성에서는 심한 정도의 손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초등학생의 성격은 중간에 속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 성격이 완전하게 형성된 상태가 아니며, 학교안전사고에서는 항목별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빈도에서는 여자가 외-내향성과 유의한 차이가 있고, 남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 손상 정도와는 여자가 외-내향성과 정서성에서 심한 정도의 손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고, 남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1학년 때부터의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였는데, 광범위한 기간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 1~2년 동안의 자료를 통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다른 방법의 성격특성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한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격특성과 학교안전사고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자의 경우에는 성격특성보다는 다른 변인들을 통한 학교안전사고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권상도(1991).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식현(1987). 인사관리론. 서울: 무역경영사.
3. 김원용(1999). 체육시간 안전사고와 성취동기와의 관계.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일수(1997). 학교안전사고 실태 분석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류희정(1984). 아이젠크 성격검사의 타당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박영수(1998). 학교보건학. 서울: 신광출판사.
7. 박현정(2002). 초등학교 아동의 성격특성과 과학탐구능력과의 상관관계.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오미진(1997). 초등학교 아동의 성격특성과 심리적 갈등해소방법과의 관계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윤건치(1991). 학교안전사고 보상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윤경희(1983). 성격특성과 학업성취와의 관

- 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순자(1997). 초등학교 학생의 성격유형과 창의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현수(1980). 성격 차원론. 중앙대학교 인문학 연구 제7·8합집, 1-27.
 13. 이현수(1983). 성격특징의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 중대논문집 제27집, 117-137.
 14. 이현수(1985). 성격차원검사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5. 이형엽(2002). 학교안전사고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임경희(1998). 가족체계의 특성과 아동의 성격차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임공묵(2000). 학교안전사고 실태 분석에 따른 지도 방안.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전양금(1983). 중학교 남학생의 성격특징과 결석 및 사고 발생과의 관련성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전춘옥(1997). 초등학교 학내사고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정남순(1995). 성격차원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조천제(1970). 산업재해 사고자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최민자(1989). 성격차원과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한광석(1987). 학교안전사고 실태 분석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0). 한국교육연감.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25. 한국산업안전공단(1995). 초등학교 안전보건 교육 지도안. 서울: 정문출판사.
 26. 한국산업안전공단(1997). 학교안전·보건교육 체계화 및 학교안전관리 지침. 서울: 정양사.
 27. 한승희(1999). 학교안전사고 연구의 동향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28. Allport, G. W.(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29. Allport, G. 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30. Allport, G. W.(1964).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31. Carron, A. V.(1980). Social psychology of sport. Ithaca, NY: Movement Publications.
 32. Cattell, R. B.(1957). Personality and motivation structure and measure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33. Cattell, R. B.(1965). The scientific analysis of personality. Baltimore, Md., Penguin.
 34. Cheppelow, J. W.(1989). Remedies for air-crew error(Report No. 664). Farnborough, UK: Royal Air Force Institute for Aviation Medicine.
 35. Eysenck, H. J.(1960). The structure of human personality. London: Methuen.
 36. Eysenck, H. J.(1983). The Inoculation effect in stress research. New York: John Wiley & Sons.
 37. Guilford, J. P.(1959). Personality. New York: McGraw-Hill.
 38. Maddi, S. R.(1980). Personality theories: A comparative evaluation(4th ed.). Homewood.
 39. McClelland, D. C.(1951). Personality. New York: Dryden Press.

40. McGuire, F. L.(1972). A study of methodological and psycho-social variables in accident research. JSAS :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91-92.
41. McGuire, F. L.(1976). Personality factors in highway accidents. Human Factors, 18, 433-442.